

삼성중, 7500억 규모 LNG 원유운반선 10척 수주

-163°C 액화가스가 연료... 황산 99% 줄인 '친환경 선박'

올 수주목표 78억달러의 54% 달성
2022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 원유 운반선 10척을 총 7513억원에 수주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2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 업계 중 처음으로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총 29척, 42억달러를 수주해 목표 78억달러의 54%를 달성했다. 수주 선종도 LNG선 11척, 원유운반선 14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 1기 등 다양한 선종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인도한 동급 LNG 연료추진 원유운반선.

/삼성중공업

이번에 수주한 선박에는 독자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 'S-Fugas'가 적용된다. 'S-Fugas'는 영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

LNG 연료추진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추진 연료로 LNG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디젤유 사용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5%, 이산화탄소 25%를 줄일 수 있다.

'S-Fugas'는 영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이나 발전기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LNG 연료추진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알려졌다.

LNG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충족하면서 고유황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클락슨과 DNV-G L, Lloyd 선급 자료를 종합해 2025년에는 세계 신조발주 선박시장의 60.3% (1085억달러)를 LNG연료추진선 시장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친환경을 지향하는 시장 흐름에 따라 2012년부터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LNG 연료탱크와 엔진(ME-

GI, X-DF)를 적용해 LNG 연료추진선 분야에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20척의 LNG 연료추진선(LNG 운반선 제외)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LNG 연료추진 초대형유조선(VLCC) 개발에 성공해 로이드 선급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LN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 설비 구축에 나서는 등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수주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려 친환경 선박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기아차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 등 신규 적용

기아자동차가 외관 디자인과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한 2020년형 스포티지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19일 디자인 고급감 강화, 고객 선호 편의사양 신규·확대해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0년형 스포티지(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면, 측면, 후면 가시쉬 등에 유광 크롬을 적용해 크롬 포인트의 고급감을 높였다. 또 전 좌석에 시트 벨트 리마인더(SBR, Seat Belt Reminder)를 기본 적용하고, 운전석 자동쾌적 제어(공조, 통풍, 열선시트, 히트드 스티어링휠 연동 제어)를 신규 적용했다.

주력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고객 최선호 사양인 1열 파워/통풍시트, 2열 히트드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ET

CS) 등을 기본 적용했다.

더불어 디젤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 트림에서도 주요 편의사양 패키지인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패키지 등을 옵션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해 고객선택권을 대폭 넓혔다.

2020년형 스포티지는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했음에도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2342만원 시그니처 2670만원 ▲1.6디젤 모델 트렌디 2381만원, 프레스티지 2588만원, 시그니처 2916만원 ▲2.0디젤 모델 트렌디 2430만원, 프레스티지 2637만원, 시그니처 2965만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됐다.

특히 가솔린 모델은 엔트리 트림에서부터 주요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하면서도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기아차는 2020년형 스포티지 출시와 함께 웹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콘텐츠는 9월 중 기아자동차 유튜브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20년형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 고객이 원하는 성능, 공간, 편의사양을 모두 갖춘 최고의 SUV"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2020년형 출시를 통해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 전 세계에 뽐냈다

美 '몬터레이 카 위크 2019' 참가
럭셔리 마켓에서 인지도 높여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가 세계적인 자동차 전시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각)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서 열린 지상 최대의 럭셔리 카 축제 '몬터레이 카 위크 2019'에서 제네시스의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를 전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몬터레이 카 위크는 매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5일간 열리는 자동차 전시회로 세계적인 럭셔리카와 클래식카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몬터레이 카 위크는 클래식카와 항공기 등이 전시되는 '백홀 모터웍스 리바이벌'로 그 서막을 열며 최고의 클래식카를 뽐내는 경연 대회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제네시스는 몬터레이 카 위크 대표 행사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에 민트 콘셉트를 선보이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럭셔리 마켓을 대상으로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높여나간



'몬터레이 카 위크 2019' 기간 중 최고의 클래식카를 뽐내는 경연 대회인 '페블비치 콩쿠르드 엘레강스' 현장에 전시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콘셉트카 '민트 콘셉트'.

는 방침이다.

이번에 전시된 민트 콘셉트는 지난 3월 열린 뉴욕 모터쇼에서 공개된 전기차 기반의 프리미엄 씨티카 콘셉트카로, 도시에서 구현되는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능성은 물론, 주행성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씨티카를 지향해 도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최적화된 차량이다.

콘셉트카 차명인 민트는 '멋지고 세련된', '완벽한 상태' 등을 표현하는 뜻으로 '작지만 스타일리시하고 도시 안에서의 이동에 최적화된 씨티카'라는 '민트 콘셉트'의 의미를 표현했다.

민트 콘셉트는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감성을 보다 진화시켜 녹여내어 뻗어나가는 듯한 앞면과 뒷면의 쿼드 램프는 민트 콘셉트만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고,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 배터리의 냉각 기능을 위해 약간의 개방감을 부여한 조형미를 선사하고 있다.

실내 공간은 빈 공간을 품는 한국의 전통적 디자인과 현대적인 유럽의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세심하게 디자인되었다. 가벼운 느낌의 직물, 코냑 가죽을 통해 아늑한 느낌을 강조하고, 문설주가 없는 차창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몬터레이 카 위크는 글로벌 럭셔리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라며 "전 세계 명차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민트 콘셉트'를 선보일 기회를 얻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전기·전자 시스템 안전성 입증

獨 인증기관 테스트프레소 규격 인증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검증 솔루션 안전성을 입증했다.

LG전자는 최근 독일 인증기관 TÜV SUD에 테스트프레소에 대한 규격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인증 내용은 전기·전자 시스템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EC61508'과 자동차 기능안전 관련한 'ISO 26262' 등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능 및 성능까

지 검증받은 셈이다.

테스트프레소는 가전과 부품, 로봇 등을 개발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2004년부터 지속적인 필드테스트를 거쳐 계열사와 타기업에도 도입했다.

LG전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춰 테스트프레소가 인증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기능안전에 부합하는 검증 솔루션이 많지 않은만큼 희소성도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볼스원 연말까지 뽕카에 차량 관리용품 지원

볼스원이 연말까지 무료 카셰어링 서비스 기업 '뽕카'에 차량 관리 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볼스원의 차량 관리 용품을 지원 받는 뽕카는 광고를 입힌 차량을 공유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카셰어링 서비스, '뽕카Go'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 기업이다.

자동차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볼스원은 뽕카Go 서비스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품들을 지원함으로

써 무료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돕는 것은 물론, 차량 관리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볼스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뽕카Go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차내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차단에 특화된 '초미세 집진 에어컨·히터 필터', 빗물을 튕겨내는 발수 및 코팅효과로 깨끗한 시야 확보를 책임지는 '레인OK



볼스원 '뽕카'에 차량 관리 용품 지원.

발수코팅 에탄올 워셔', 프리미엄 차량용 방향제 '그라스 디퓨저(105ml)'와 '볼스원 조강력겔 크롬샤인 거치대'를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